

## 북미정상 판문점 회담 유력

### 트럼프 “한반도 비핵화 시발점 ... 엄청난 기념행사 될 것”

문대통령, 유엔 총장에 북한 핵실험장 폐쇄 참관 요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판문점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많은 나라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되고 있다”며 “하지만 남북한 접경 지역인 (판문점 내) 평화의 집·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일까? 한번 물어본다”라고 직접 거명했기 때문이다.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날 백악관에서 이뤄진 무함마드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제3국이 아닌 그곳(판문점)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오리무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놓고 “워싱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평양에서 만나기를 원치 않는

다”고 말해, 워싱턴과 평양이 아닌 제3국에서 열릴 것으로 점쳐졌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몽골 울란바토르, 스위스 제네바, 스웨덴 스톡홀름, 괌 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판문점도 거론되기는 했지만 장소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줄일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크게 부각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했는지, 북한과 조율을 거쳤는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시발점이자 세계사적 장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함에 따라 역사적 대좌의 무대로 최종 낙점이 될 가능성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북한 핵실험장 폐쇄현장을 함께 확인하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과정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구테흐스 총장이 수락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유엔 총장과 오전 11시 30분부터 30여 분간 통화를 하며 “북한 핵실험장 폐쇄현장을 유엔도 함께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거론하며 “폐쇄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 폐기를 확인해 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가운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 과정 또한 유엔이 참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엔이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해주면 좋겠다”며 “유엔의 지지는 남북관계 발전뿐 아니라 다가오는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 화성기 방송시설 동시 철거... 소리전쟁 끝났다  
남북이 1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반세기 넘도록 체제대결 등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화성기 방송시설 철거작업에 돌입했다. 사진 왼쪽은 이날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 소초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화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탈곡장에 인공기와 방송차량 및 스피커가 보이지 않는 모습. /연합뉴스

## 광주비엔날레, 평양에서도 열릴까

문화부에 남북 미술교류 제안

9월 행사 북한미술 색션 주목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미술 분야 교류 역시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세계 미술축제의인 광주비엔날레를 평양과 오가며 여는 안을 거론,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본격적인 남북 미술 교류 증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동전시와 학술대회 등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제안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광주비엔날레를 평양과 번갈아 가며 여는 안과 평양에서 별도의 비엔날레를 여는 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금부터 남북 교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들어보고 있는 초기 단계이



9월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일 북한 최고 화가 최창호 작 '로동자'

며 광주비엔날레 평양 개최 역시 여러 제안 중 하나로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는 없

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교류 분위기 속에서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 색션이 첫 교류 전시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을 9차례 다녀온 북한미술 전문가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가 기획한 북한미술 색션에는 북한 최고 화가로 꼽히는 최창호, 공훈 예술가 김인석을 비롯해 30여 명이 그린 조선헌화, 집체화가 전시된다. 현재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통일부에 작품 반입을 승인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재단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의 평양 순회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제안을 한 적도 없다”며 “북한 작가 초청은 문범강 큐레이터의 제안을 받은 상태로 작품 반입 승인이 떨어지면 후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중앙·일곡공원 등 사업자 공공기관으로 제한 ‘무산’

국토부, 재정지원은 안하고

지침 행정으로 지자체 통제

광주시, 오늘 2단계 방안 발표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광주시가 중앙·일곡·중의 등 광주의 대표 공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사업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부가 지방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 일률적인 지침을 만들어 지침대로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회피하면서 ‘지침 행정’으로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는 국토부의 단일한 인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주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제한경쟁이나 우선권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나 국토부가 간접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 1단계와 같이 다수제한방식으로 2단계 대상 공원을 제안서를 받을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을 도시공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

공모대상자의 제한 등을 국토부에 질의한 바 있다. 법무법인 2곳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문 내용도 첨부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침에도 법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지침을 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1단계와 같이 민간사업자들이 참가하는 제안서 공모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사업수행실적 등에서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27일 2단계 공원 개발 방향과 관련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가진 시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단계 대상 공원에 중

앙·일곡·중의 등 광주를 대표하는 대규모 공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개발 규모를 지침에서 규정한 30%에서 10%로 축소하고 시 재정 투입 방안도 마련했다”며 “국토부의 판단으로 인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다소 미흡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논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협약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대부분 협의를 했다”며 “앞으로 그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그동안 공공성 확보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민단체, 전문가, 의회,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회를 구성해 현장 확인과 18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영암서 미니버스 충돌사고 8명 숨져

7명 크게 다쳐 병원 치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노인 8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6면〉

1일 영암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1분께 영암군 신북면 주암삼거리 도

로에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코란도C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8시 현재 25인승 미니버스가 전복돼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15명 중 8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

로에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코란도C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8시 현재 25인승 미니버스가 전복돼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15명 중 8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농사철 인력을 실어나르던 이 버스에

는 운전자 1명과 60~80대 이상 노인 1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란도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은 경 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이날 버스가 영암읍에서 나주 방면 편도 2차로 운행중 1차로에서 주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버스는 사고충격으로 우측 가드레일과 부딪힌 뒤 옆 도로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전봉원기자 jbh@kwangju.co.kr

## 앙상블 디토 DITTO

광주일보 창설 67주년

광주일보 창설 67주년을 맞아 스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이끄는 앙상블 디토 공연을 오는 6월 18일에 개최합니다. 관객들을 찾아오는 '앙상블 디토 - Dynamic DITTO'는 디토가 공간과 젊음을 모토로 2009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2018 디토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올해 공연에는 리처드 용재 오닐을 비롯해 2015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한 대만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첸, 2014 루빈슈타인 콩쿠르 은메달 수상자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 아시아 최초의 파벨로 카질스 콩쿠르 1위 수상자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 클라리넷의 김환이 참여해 프랑스의 '피아노4중주 2번' 등을 들려줍니다. 광주일보 독자들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 비올라 : 콘트라베이스
- 소스타코비치 : 피아노 삼중주 2번 6단조, 작품 67
- 프랑스 : 피아노 사중주 2번 A장조, 작품 26



(C) Sangwook Lee

2018. 6. 18 [월]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티켓 R이 88,000원 | S이 66,000원 | A이 33,000원 예매 티켓마루 1588-0766 | ticketmaru.co.kr 문의 062-220-0541

광주일보 창설 67주년

2020 대입 77% 수시로 뽑는다 ▶ 7면

전라도 천년 인물-장성 김인후 ▶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